##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6~8/12

###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고엔카의위빳사나10일코스-큰활자본 | 윌리엄 하트 | 김영사 |
| 2 | 조계고승전 | 백운 | 불교신문사 |
| 3 |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 원영 | 불광출판사 |
| 4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 목경찬 | 불광출판사 |
| 5 | 예수재의범 | 해사 | 운주사 |
| 6 | 생명의 꽃 묘법연화 | 석봉곡 | 조계종출판사 |
| 7 | 마음챙김의 시 | 류시화 | 수오서재 |
| 8 | 무비스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 | 여천 무비 | 담앤북스 |
| 9 |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 | 불교신문사 |
| 10 | THE DIAMOND SUTRA(금강경영어판) | 무비,조현춘 공역 | 운주사 |

###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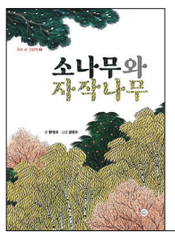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 아헹가/현천 역 | 선요가 |
| 2 | 초역부처의 말(2500년동안사랑받은) | 코이케 류노스케 | 포레스트북스 |
| 3 | 붓다의 가르침:라훌라스님의 현대적 사고로 쓰인 불교해설서 | 월폴라 라훌라 (Walpola Rahula) | 맑은소리맑은나라 |
| 4 |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 5 | 불교문화(조계종 신도교재4)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 6 | 업설지장경(현대의 영험록 수록) | 신춘열 엮음 | 광륵사 |
| 7 | 에니어그램 행동특징과 명상상담 전략(명상상담01) | 인경 지음 | 명상상담연구원 |
| 8 | 마하시사야도의 담마짝까법문:초전법륜경해설(큰북셋) | 일창 담마간다 역 | 불방일 |
| 9 |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수록*법정스님원적 10주기 추모집 | 법정스님 | 불교신문사 |
| 10 | 지안스님의 승만경강의 | 지안 강설 | 운주사 |

#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연의 마음'



달팽이를 사랑한 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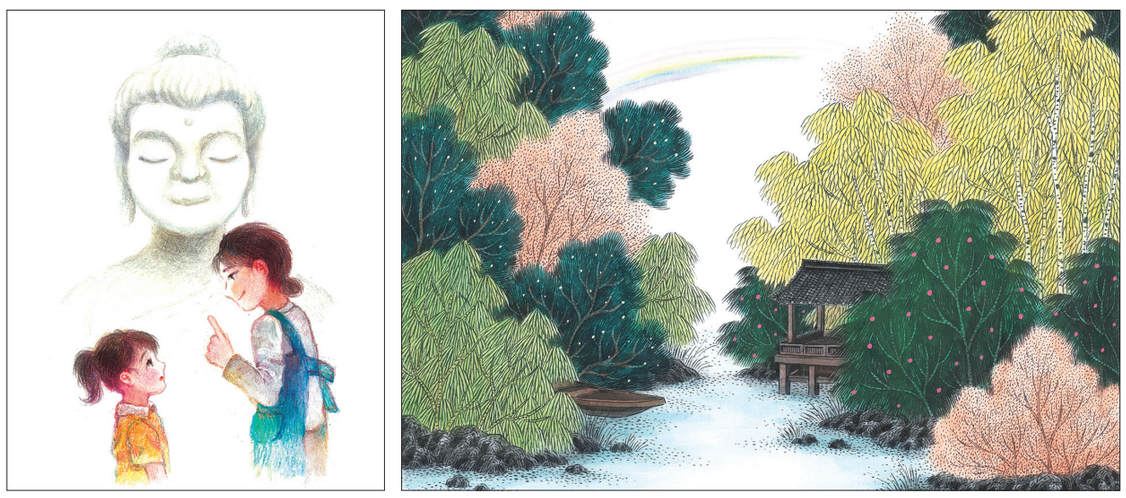
여태동 글 / 여민 그림
선묵 혜자 스님 감수
도서출판 해조음 / 1만3000원



소나무와 자작나무

함성호 글 / 김민주 그림
국수 / 1만5500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아이들에게 자연은 좋은 친구이자 스승이다. 〈달팽이를 사랑한 송아〉(왼쪽, 그림 제공=해조음)와 〈소나무와 자작나무〉(그림 제공=국수) 속 한 장면.

**주말농장서 만난 자연의 친구들**
**사라진 달팽이로 '인연법' 깨달아**
**"자연과 교감하는 생명 이야기"**

**함성호 시인이 읽은 '나무의 마음'**
**김민주 화가가 한국화로 그리다**
**"두 나무의 마음이 시가 되듯"**

아이들에게 자연만큼 친근하고 좋은 친구가 있을까. 자연을 담은 동화책 역시 아이와 함께 읽고 감상하며 대화를 나누기 더없이 좋은 친구다.

〈달팽이를 사랑한 송아〉는 송아가 자연을 벗하며 도시농부로 살고 있는 아빠의 주말농장에서 만난 달팽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겪는 이야기다.

틈만 나면 주말농장에 가는 아빠를 따라나선 송아는 심심하던 차에 비닐하우스에서 달팽이를 발견한다. 소름 끼치게 놀란 것도 잠시. 친구도 없이 혼자 있는 달팽이가 안타까웠던 송아는 며칠만 키우자며 집으로 데려온다. 배춧잎과 과일을 잘라 먹이로 주고 똥도 치워주며 달팽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그런데 어느 날, 달팽이가 사라졌다!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결국 달팽이를 찾지 못한 송아는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한다. 이튿날 가까스로 달팽이를 발견한 송아는 달팽이를 다시 농장으로 보내 준다.

그때, 송아는 연꽃유치원에서 선생님께 배운 부처님 가르침이 문득 떠올랐다. "좋은 생각을 하며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인연법'이다.

"달팽아, 잘 가. 올해는 농장에서 잘 살고, 아기도 많이 낳아 기른 후 겨울에 땅속에서 잘 지내다가 내년에 또 만나자."

불교신문 기자로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여태동 작가가 글을 쓰고, 딸인 여민 씨가 그림을 그렸다. 여태동 작가는 "요즘 어린이들이 경쟁에 떠밀려 동심의 세계를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자연과 교감하는 생명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동심 가득한 '한 명 한 명의 송아'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동화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감수를 맡은 선묵 혜자 스님은 "요즘 어린이들은 자연을 벗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며 "많은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저마다의 마음속에 '평화의 불'이 깃들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 되길 발원한다"고 추천사를 썼다.

나무는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어떤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고, 어떤 나무는 감미로운 향기를 만들어 내고, 또 다른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낸다.

〈소나무와 자작나무〉는 이러한 '나무의 마음'을 시와 그림으로 엮은 책이다. 함성호 시인은 소나무의 향기를 맡고 자작나무의 노래를 듣고, 그 두 나무 사이에 있는 호수가 숲속 나무들의 '하얀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자작나무의 노래는 소나무의 향기를 하얀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소나무의 향기는 자작나무의 노래를 하얀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호수의 눈이 깊어질수록 향기는 더 짙어지고 노래는 더 멀리 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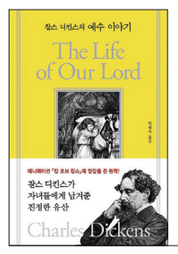
함성호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숲과 나무, 나무와 호수, 나무와 나무의 풍경을 한국화가 김민주 작가가 여덟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잔잔한 시와 그림이 마음 가득 새겨진다.

함성호 시인은 1990년 〈문학과사회〉 여름호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해 1991년 〈공간〉 건축 평론 신인상을 받았다. 시집 〈56억 7천만 년의 고독〉, 〈聖 타즈마할〉 등과 티베트 기행 산문집 〈허무의 기록〉, 건축 평론집 〈건축의 스트레스〉 등을 펴냈다.

김민주 작가는 '숲을 그린 까닭(2014년, 서울, 갤러리조선)'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지원하는 시각예술작가로 선정됐다. 〈소나무와 자작나무〉에 담긴 그림으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이웃 종교 책 읽기

# 아이 눈높이로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예수이야기

찰스 디킨스 지음
민혜숙 옮김
이른비 / 1만3000원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 포스터.
사진 출처=모팩스튜디오

**자녀 위해 집필…85년 만 출간**
**자상하고 친절한 예수의 생애**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에 영감**

올해 4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는 미국에서만도 6000만달러(약 820억 원)의 매출을 올려 북미 박스오피스 역대 한국 영화 1위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8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이 영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의 일생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종교적 색채를 지녔음에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의 원작은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1812~1870)가 쓴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다.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번역서가 다수 출간되었는데, 책의 어떤 매력이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에 전해진 것인지 궁금해 그중 한 권인 〈찰스 디킨스의 예수 이야기〉를 골랐다.

먼저 책이 출간된 과정이 눈길을 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찰스 디킨스가 1846년에서 1849년 사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쓴 책이다. 다만 디킨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에서 집필한 이 책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1870년 그의 사후 처제와 디킨스의 여덟 번째 아들 헨리 경에게 남겨졌다. 이후 헨리 경이 1933년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이듬해 5월 처음으로 출간됐다.

디킨스는 이 책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리'보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의 삶을 쉽고 재미있게 재구성했다. 성경에 기반해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도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자상하게 설명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어머니 이름을 마리아였어. 베들레헴은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에, 여관이나 가정집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방은 없었지. 그래서 그들은 허름한 숙소에 딸린 마구간으로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다."** -27p 중에서

디킨스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인류의 사랑과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겸손하게, 진심으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존중한다면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당부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이에게 조근조근 읽어 주기 좋겠다는 부러움이 드는 한편, 불자로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들려주는 책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든 책이다.

여수령 기자


화제의 신간

#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